

직물마패의 보존

박승원, 116호 고려Ⅱ실 18:00~18:30

마패馬牌라 하면, 어사御使의 인장印章으로 재질은 금속이고 1~2cm 정도의 두께에 한 손에 쥘 수 있는 크기, 모양은 둥글고 가운데에 말이 새겨진 패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마패는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으로, 재질은 직물이고 직사각형 모양에 두루마리처럼 말아 끈으로 돌려 묶어 고정하는 직물마패織物馬牌 (덕수1784)입니다. 가로 124cm, 세로 34cm인 가로로 긴 사각형이고, 화면과 화면을 둘러싼 장황 모두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특별전시를 위해 보존처리가 진행되었고, 기존에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유물로서 심층 연구가 진행 되어 발표 되었습니다¹⁾. 이 직물마패는 중국 명대明代에 국가 차원의 중대 임무를 띠고 여행하는 관원에게 각 역참에서 역마驛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마패, 즉 육로용 부험符驗으로서, 고려 말인 1390년(공양왕2)에 제작한 것을 명 태조가 명을 찾아오는 고려 측 사행使行의 여행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²⁾. 직물마패는 배접된 화면에 사용된 풀의 접착력이 약해지면서 분리되었고 상측은 기존에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바닥면과 어긋나서 재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화면을 이루는 직물은 두 종류의 경사와 두 종류의 위사를 사용하여 바닥조직과 무늬 조직에 차이를 둔 위중조직緯重組織이고 전체적으로 능직綾織입니다. 화면의 글자는 검정색, 말은 색상을 맞춘 실을 사용했고 사각형 테두리는 파랑색 선으로 구획을 구분하고 구름 속을 나는 용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직조되었습니다.



그림1. 보존처리 전(上)·후(下) 모습



그림2. 직물 현미경 확대사진[화면(左), 장황(中), 끈목(右)]

1) 서성호(2015), 덕수1784 “織物馬牌”의 正體와 明 符驗, 東垣學術論文集 第16輯, pp.47-70.

2) 이 직물마패가 명 황제가 발급한 마패인 것은 『연암집』에 수록된 「열하일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11)

박진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아스틀란(하얀 땅) 출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수호신 우이칠로포츠틀리의 예언으로 고향을 떠나 200년 가까이 유랑하던 중 부족의 이름을 메시카로 바꾼 후 14세기 무렵 멕시코 중앙고원 속에 있는 테스코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다른 문명과 비슷하게 아스테카 역시 태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다른 문명과 조금 다른 점은 신들의 희생 덕분에 세상과 태양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인간이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태양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스테카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카족이 세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 호수 주변의 테스코코, 틀라코판과 삼각동맹을 이루어 주변의 도시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통제의 방식은 전쟁과 공물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스테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원리가 되었습니다.

전시는 아스테카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우주, 자연 환경, 아스테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그 중심에 있었던 신성 구역 그리고 대신전인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 순입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진 아스테카의 잔혹한 이미지가 다분히 기독교적 정복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 전시는 인신공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의례 이면에 있는 아스테카 사회의 작동원리와 세계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관람객 개개인이 이 전시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1. 인간의 창조자이자 지혜와 새벽의 신 케찰코아틀(깃털달린 뱀, 두 번째 태양)



그림2. 움직임의 태양 토나티우 (다섯 번째 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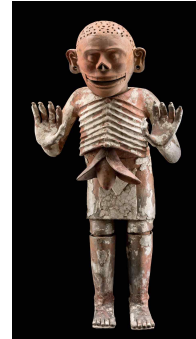


그림3. 지하세계의 신 므틀란테쿠틀리



그림4. 젊은 옥수수의 신 실로넨

사리장엄구

신명희, 302호 금속공예실 19:00~19:30

사리장엄舍利莊嚴이란 사리를 예식에 따라 갖추어 꾸미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는 사리를 담는 용기인 사리기舍利器와 사리에 바쳐진 불상, 소탑, 향 등 여러 공양구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사리舍利란 원래 몸이나 뼈, 시체, 유골 등을 뜻하는 말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사리라 sarira'를 한자로 적은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나 고승의 유골, 혹은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 열반 이후 고대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의 유골인 사리를 모시기 위해 불탑佛塔을 건립하였습니다. 석가모니의 사리는 석가모니 그 자체로 숭배하게 되었고, 사리 신앙이 싹트면서 불탑을 건립하고 불탑에 대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리신앙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중국에 전래되었고, 중국의 진신사리 전래는 삼국시대(신라)부터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옛 기록에는 사리 전래와 사리 봉안 및 이에 따른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리장엄구 중 사리기는 사리를 담는 그릇으로, 사리를 직접 담는 사리병, 사리병을 안치한 사리내함(사리호)과 사리외함(사리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리 봉안의 전통에 따라 여러 겹의 그릇에 안치하는데, 이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시신을 금, 은, 동, 철로 만든 네 겹의 관에 안치했다는 기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 겹의 용기에 사리를 안치하는 전통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고대에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금, 은, 동, 철(석) 귀한 재료 순으로 만들어진 용기를 내·외함으로 하고, 유리나 수정으로 사리병을 만들어 사리를 직접 담았습니다.

감은사 동 삼층석탑에서 발견한 사리기는 수정사리병-내함-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함의 기단 위에는 화염보주 모양의 덮개가 있는데 안쪽에는 사리병을 안치할 수 있는 받침을 만들고 수정사리병을 놓았습니다. 네 개의 기둥이 화려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집 모양의 내함은 방추형의 뚜껑이 덮인 사각형의 외함 안에 봉안됩니다. 여러 겹의 용기에 사리를 봉안하는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림1. 감은사 동 삼층석탑 사리기

제68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7월 20일)

부채와 대나무로 여름 나기

이재호, 202-5호 서화실Ⅱ 19:00~19:30

부채는 옛 사람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양반은 계절에 상관없이 선추를 단 쥔 부채를 지니고 다녔고, 서민들도 부들부채로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단옷날에는 부채를 선물하며 여름을 무사히 나기를 기원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한 박기준朴基駿은 부채를 잘 그리기로 이름났습니다. 원래 백선도 병풍은 부채에서 떼어낸 그림을 병풍에 붙여 모은 것이었지만, 박기준은 병풍에 갖가지 부채를 실제처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림 속 부채에는 산수화, 화조화, 서예가 어우러져있어 박기준이 다양한 그림을 잘 그린 화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의 물성을 만져질 듯 재현한 서화는 19세기에 뚜렷한 경향이 되었습니다. 이는 서화를 도덕적, 실용적 쓸모로 판단했던 효용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흐름이었습니다.

대나무는 사군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먹그림 소재였습니다. 북송의 소식蘇軾과 문동文同在 묵죽화의 전통을 세웠고, 조선에서는 도화서 화원 선발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묵죽도에 매겼습니다. 우봉又峰 조희룡趙熙龍(1789-1866)은 중인 출신의 문인화가로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문인門人 가운데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묵죽도는 임자도 유배시절 거쳐 주위에 대나무를 가꾸며 그린 작품으로, 화제에 조희룡의 화론畫論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대나무 그리는 것은 초서草書 쓰는 것과 같아, 찬삼攢三이니 취오聚五 따위의 어떠한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창에 비친 여린 달빛을 포착했다면, 비바람 푸르름도 살피야 한다.”는 조희룡의 글은 예술이 화가 개인의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되어야함을 설파합니다. 이 여름, 부채와 대나무 그림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서화실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1. 박기준, <부채와 나비>(부분)



그림2. 조희룡, <대나무>(부분)